2021 대한민국 트렌드

우리나라 성인 남녀 31%, 타투(문신) 경험 있다!

기억 1. 영화를 보는데 몸에 화려한 문신을 한 남자가 나온다면? 그는 필시 조폭이다. 남자들은 목욕탕에 갔을 때 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만나면 왠지 피하고 싶은 본능을 느낀다.

기억 2. 유명 가수 이효리의 예전 사진을 보는데 그의 팔뚝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walk lightly in the spring, Mother earth is pregant'(봄에는 사뿐히 걸어라, 어머니 같은 지구가 임신 중이니)라는 타투였는데, 조폭 같은 무서움은 들지 않고 너무 예뻐 보였다. 그리고 의미있는 글귀로 타투를 한 이효리라는 가수의 개성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좋았다.

문신, 즉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기존 사고로는 타투는 조폭이나 날라리가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날라리와 거리가 먼, 축구의 신으로 대접받는 메시도 얼마나 화려한 타투를 하는지 모른다.

실제 만 59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 결과 31%가 타투 경험이 있으며, 57%가 앞으로 해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귀하 교회에 문신을 한 사람이 오면 귀하와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곧 교회에 문신을 티나게 한 사람들이 올지 모른다. 못마땅한 눈으로, 경계의 시선으로 그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일말의 거부감이나 스스럼없이 그를 대할 것인가?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15호에서는** 문신, 즉 타투를 한 사람이 왜 늘어나는지 그게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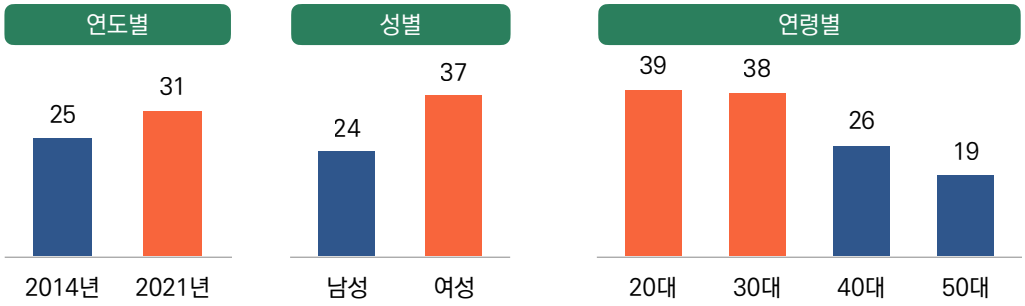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타투(문신)한 사람, 점차적으로 증가!
2014년 25% → 2021년 31%

- 요즘 우리 주위에는 타투, 즉 문신을 한 경험이 2014년에 25%에서 2021년 31%로 증가해서 타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타투는 여성과 젊은 층이 많이 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은 10명 4명 가까이 타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타투(문신)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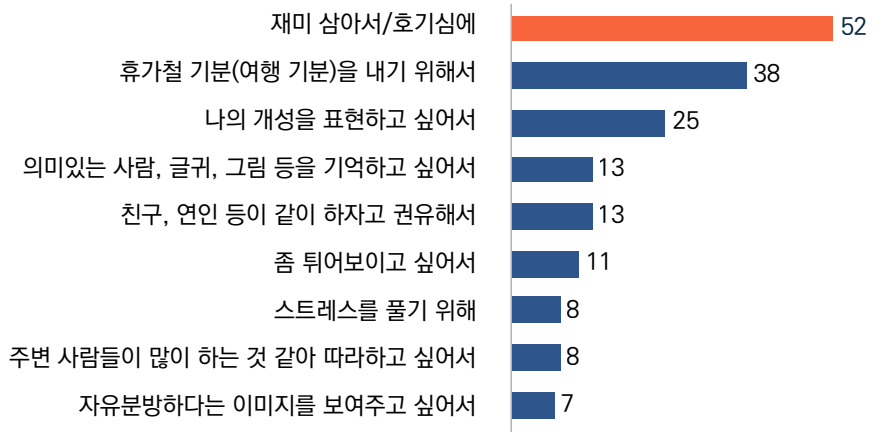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 타투를 하는 이유, 현실에서 탈출하여 자유로운 자신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

- 타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미와 호기심(52%)이었으며, 휴가철에 기분을 내고 싶었거나(38%),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서(25%) 타투를 새겼다는 경험자도 많았다.
- 그 외에 튀어 보이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유분방하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고 싶어서도 이유로 응답되었다.
- 현실에서 탈출하여 자유로운 자신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이 심리가 기저에 있는 것이다.

[그림] 타투를 한 이유(타투 시술 경험자,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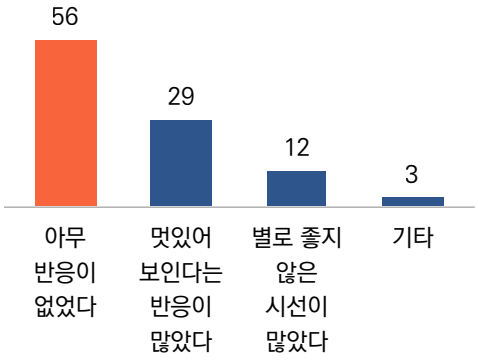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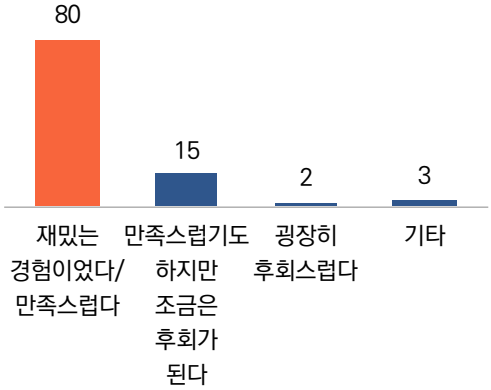
● 타투는, 자기 만족이 크다!

- 타투를 한 사람에 대해 주위에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데 타투를 한 본인은 '재미있었다/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이 80%로 매우 높았다.

[그림] 타투 후 주변 반응 (%)



[그림] 타투 후 본인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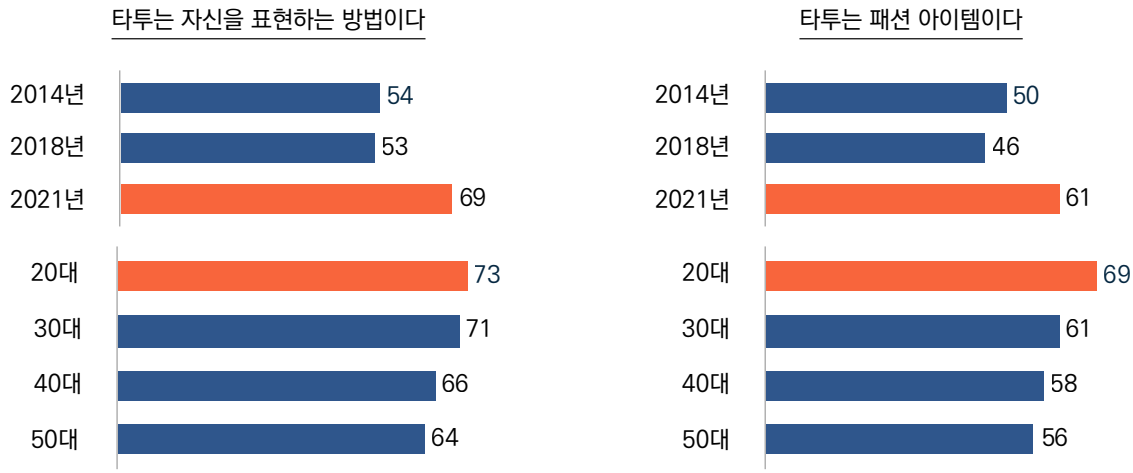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 타투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69%

- 타투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14년보다 훨씬 많아져서 69%에 달했다.
- 젊은 층일수록 타투를 자신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2014년 50%에서 2021년 61%로 훨씬 더 강해졌다.
- 타투를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보는 시선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타투의 의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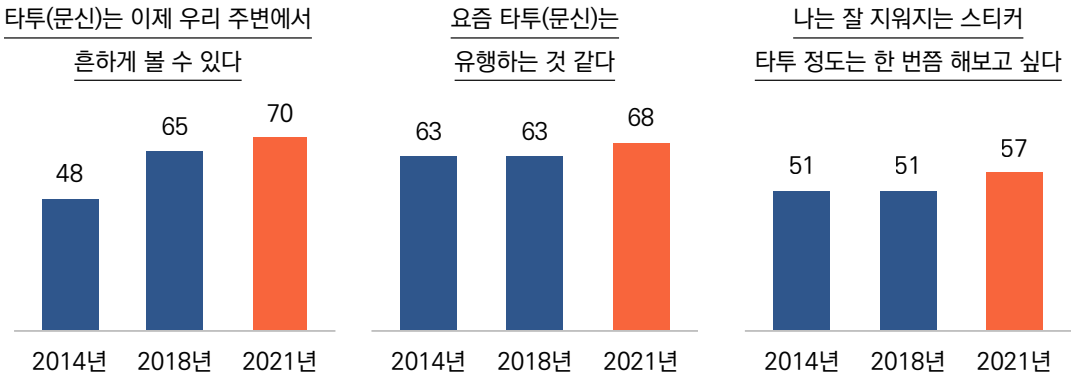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2

타투가 트렌드다!
– ‘앞으로 타투 한 번 해보고 싶다’ 57%

- 타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타투’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 타투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응답이 2014년 48%에서 2021년 70%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 요즘 타투가 유행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2014년 63%에서 2021년 68%에 달하고 있다.
- 타투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의향률 57%로 응답자 10명 중 절반이 넘는다.

[그림] 타투(문신)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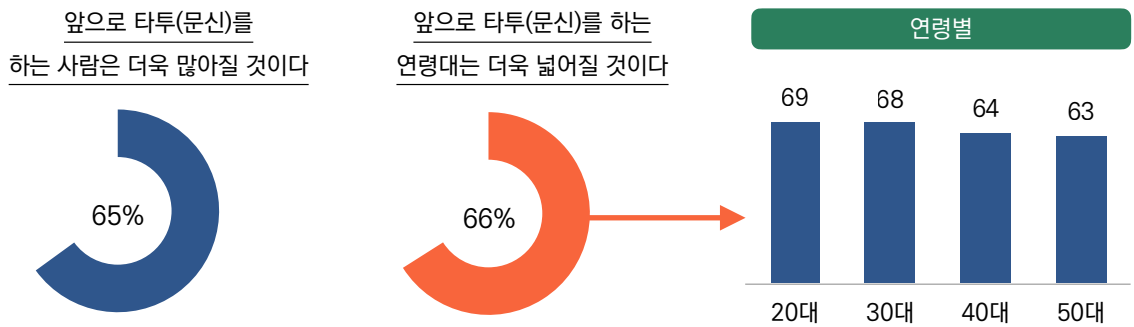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 타투,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65%

- 전반적으로 타투는 향후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5%가 앞으로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 특히 타투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예상(66%)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주로 젊은 층이 타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투를 하는 중장년층도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장년층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림] 타투에 대한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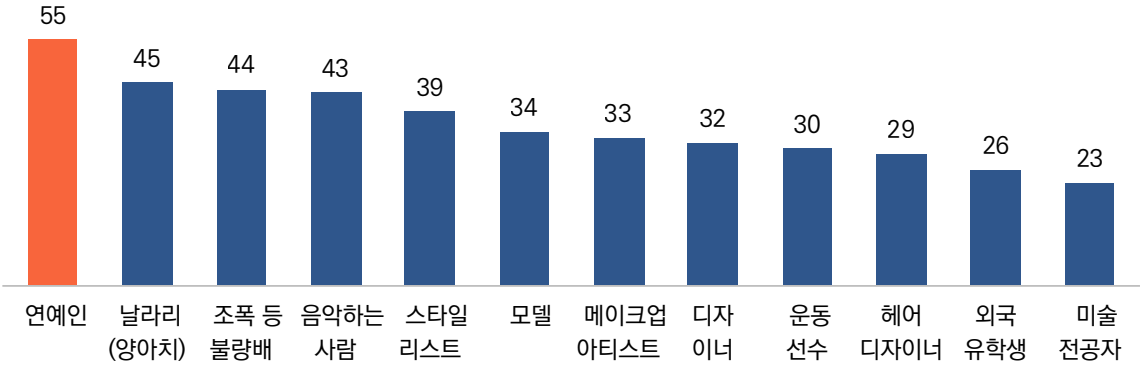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3

타투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 '연예인' 55%

- 타투를 한 사람을 보면, 날라리(양아치)와 조폭 등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일부 남아 있으나, 대다수는 연예인, 음악인 등 패션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 즉 타투가 자유로운 개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타투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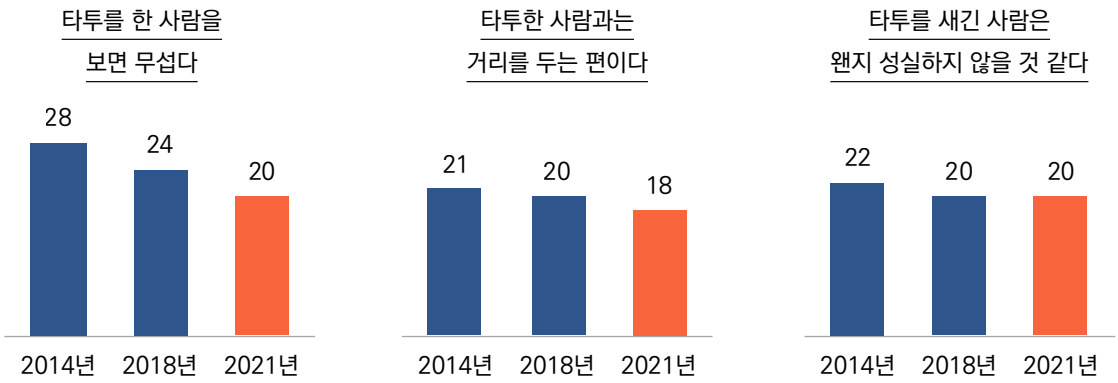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 타투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

- 타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타투를 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상당히 옅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타투를 한 사람을 보면 무서움을 느끼거나, 거리를 두는 편이라고 말하는 응답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 타투를 몸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왠지 성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선입견도 20%로 낮아졌다.

[그림] 타투한 사람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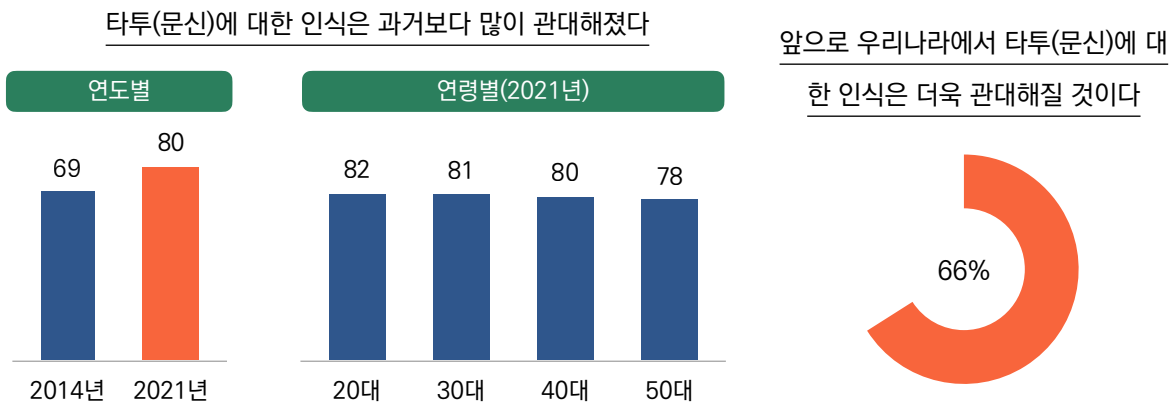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 타투에 대한 인식, '앞으로 관대해질 것이다' 80%

- 타투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도 크게 달라졌다. 전체 응답자의 80%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고 평가했는데, 이런 변화를 연령대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 그리고 이러한 관대함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타투(문신)에 대한 태도 -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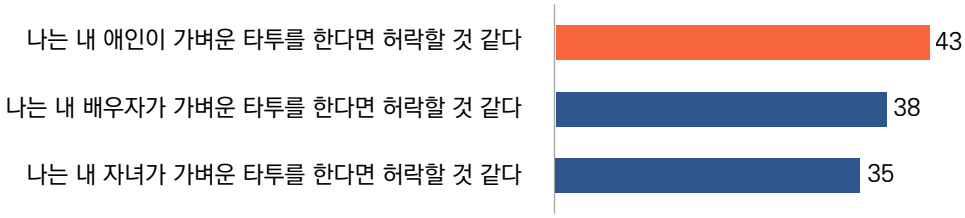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4

타투, 가족은 글쎄…

- 타투를 개인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므로 남들이 타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지만 내 가족이 영구 타투를 제외하고 헤나 타투, 레터링 타투, 스티커 타투 등 가벼운 타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반기지 않는다.
- 특히 자녀가 타투를 하는 것은 찬성하는 의견이 별로 많지 않다.

[그림] 가족의 타투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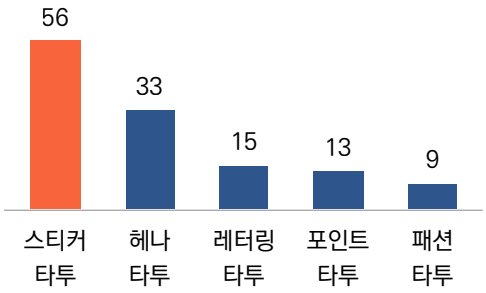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 가벼운 타투는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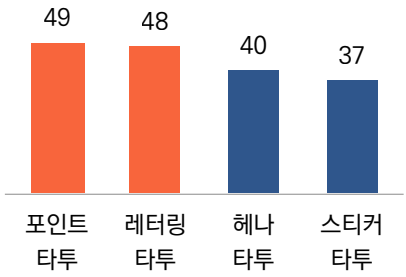
- 타투를 한 사람은 주로 스티커 타투, 헤나 타투 등 쉽게 지워지는 일회성 타투 경험이 많은 편이다
- 하고 싶은 타투는 포인트 타투와 레터링 타투 등 기존에 많이 하는 스티커 타투, 헤나 타투 등 1회성 타투보다는 영구성 타투를 원하지만 아직도 조금 작고 과하지 않은 타투를 많이 꼽았다.
- 사람들은 타투에 관대해졌지만 아직도 대체로 작은 크기로도 개성을 표현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형태의 타투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투의 종류]
• 스티커 타투 : 스티커를 이용해 붙이는 것으로 없어지는 1회용 타투
• 헤나 타투 : 봉숭아 물을 들이듯이 하는 타투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타투
• 레터링 타투 : 자신의 신념이나, 좋아하는 글귀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들을 새기는 타투
• 포인트 타투 : 신체 일부에 작은 글자 혹은 표식을 넣는 타투
• 패션 타투 : 꽃, 요정, 만화캐릭터 등 자신이 원하는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타투

[그림] 시술한 타투(타투 시술 경험자) (%)



[그림] 시술하고 싶은 타투(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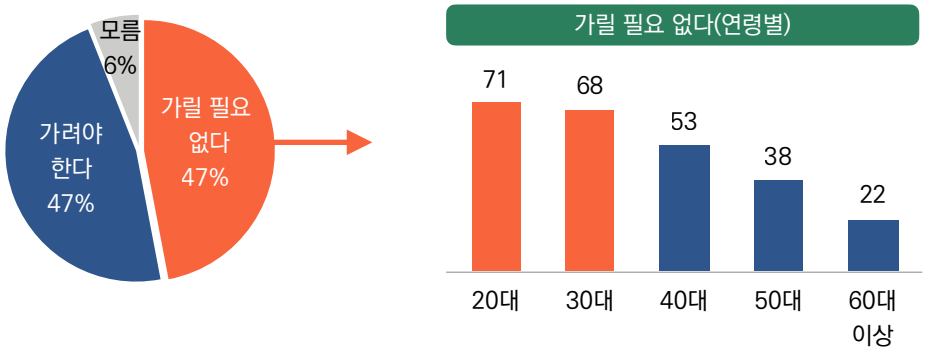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5

TV출연자의 타투는 '가려야 한다' 47%, '가릴 필요없다' 47%

- 타투에 대해 관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TV 출연자의 타투에 대해서는 '가려야 한다'와 '가릴 필요없다'가 각각 47%로 같은 비율이었다.
- 타투는 개인적 선택이지만 타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TV에 나오는 출연자의 타투에 대해서는 가리거나 모자이크 방식으로 감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그림] TV 출연자 타투 출연 시 의견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1.6.25.(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 전화조사, 2021.6)

시사점

중국의 고전에는 문신과 관련된 여러 글자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경형(黥刑)이다. 기원전 1천년 이전부터 범죄자의 얼굴에 글자를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 형벌로 죄인의 이마나 팔뚝에 먹으로 죄명을 새겨넣는 것을 가리켜 '경을 친다'고 하였다. '경을 칠놈'이라는 말의 연원이다. 몸에 대한 훼손은 서방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인간의 몸은 신의 형상을 구현한 것으로 손상하면 안 된다고 여겼다. 타투를 한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범죄자 같은 사람이 연상되는 것도 타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타투가 꼭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만은 아니다. 고대 미라 혹은 현대 아프리카나 태평양 지역 문화권에서 타투는 신분을 나타내고 주술적 혹은 영적 목적으로,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어 왔다. 즉 타투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한편으로는 긍정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 왔던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타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타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은 거의 없고 부정적인 시각만 있었다. 명나라 형벌 체계를 들여온 조선시대의 형벌 가운데 자자형(刺字刑). 혹은 묵형(墨刑)이라고 해서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먹물로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이 있었다. 사람을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죽이는 형별은 아니지만 자자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말 개화기 시대에 사람들이 고종이 단발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 스타일로 바꿨지만, 일부 고집스러운 양반들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즉,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머리를 자르는 것을 거부하고 상투 머리를 고수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몸에 문신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타투가 죄인의 표식이었다면 근대 들어와서는 조폭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 조폭들이 일본 야쿠자의 영향을 받아서 타투를 하기 시작해서, 타투는 조폭을 의미했다. 남자들은 목욕탕에 갔을 때 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만나면 왠지 피하고 싶은 본능을 느낀다. 그만큼 문신에 대해서 우리는 혐오, 회피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타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어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연예인과 예술인들이 타투를 하면서 타투가 자유로운 개성의 표출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주로 젊은이를 중심으로 유명 스타와 동일시하려는 욕구, 남들과 달라 보이려는 욕구, 자기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욕구 등을 가진 사람이 타투를 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타투에 대해 관대하게 받아 들이는 분위기가 커졌다. 그렇다고 부정적 인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아직도 부정적 인식이 크지만 긍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교회에서는 타투를 한 사람을 아직까지 보기는 쉽지 않다. 타투를 하고 싶어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교회 분위기이다. 하지만 앞으로 타투에 대해 더 사회적으로 관대해지고 이를 시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에서도 타투를 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때 교회는 타투를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가 엄숙주의에 빠져 가볍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시대의 변화를 놓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사회와 유리된 곳으로 만드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자기 개성을 마음껏 펼치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넘쳐날 때에 교회는 좀 더 친근한 장소로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